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4.1.26.(금) 조간	배포	2024.1.25.(목)		
담당부서	회계감리2국 기획감리팀	책임자	국 장	류태열	(02-3145-7290)
		담당자	팀 장	최창중	(02-3145-7292)

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

〈주요 내용〉

- ◆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.
- ◆ 이에 '21 및 '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, 위반 건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*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본 의무사항은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,
 - * '21 및 '22 회계연도의 총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, 14건으로, 과거 5년('16~'20 회계연도)의 연평균 위반건수(약 43건) 대비 크게 감소
- ◆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, 결산을 진행중인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

[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주요 내용]

- ☑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규 미인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☑ 회사는 내부회계 관련 내규 마련 외에도 충분한 자원, 인력 등을 투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합니다.
- ☑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필수 공시서류 및 공시 방식을 확인하여 정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☑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,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.

I.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

□ **(개념)**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하기 위해 설계·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합니다.

○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*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,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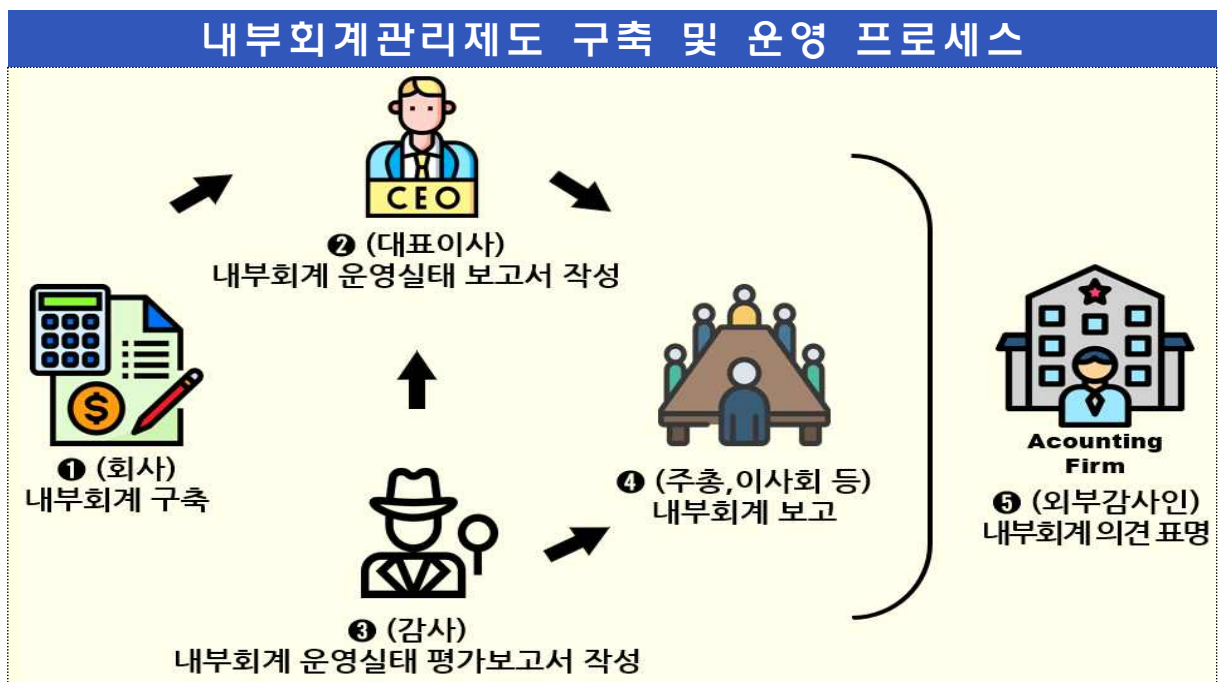
*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('23.5.2. 시행)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

□ **(운영)** 회사, 대표이사(내부회계관리자), 감사(위원회) 및 외부감사인(인)은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, 운영실태 보고, 평가, 감사(검토)의견 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
○ 구체적으로 ①회사의 내부회계 구축*, ②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, ③감사(위원회)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, ④외부감사인의 인증(감사 또는 검토)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.

*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시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·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

※ 상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, 회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, 감사 및 외부감사인도 과태료(3천만원 이하) 부과 대상이 됨(외부감사법 제47조 제2항)



II. 점검결과 유의사항 안내

1 [회사]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공시 관련

◆ **회사는 자산총액 증가, 상장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,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**

-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, 비상장법인은 별도(개별)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*인 경우,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.

* 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,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,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필요

위반 사례

- ✓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
- ✓ B사는 자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

◆ **회사는 자원·인력 등을 충분히 투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**

-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·운영하는 조직을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.

위반 사례

- ✓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나, 내부회계관리 인력이 모두 퇴사하였음에도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운영되지 않음
- ✓ 내부회계 도입 초기인 D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은 갖추고 있었으나, 내부회계관리 조직 인력을 갖추지 못함

◆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
-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,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, ③ 감사인 검토 (감사)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위반 사례

- ✓ E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운영실태보고서는 첨부하였으나, 운영 실태 평가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음

2 [대표이사·감사]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의무 관련

◆ 대표이사는 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를,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고 기록·관리 하여야 합니다.

위반 사례

- ✓ F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하였으나,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고, 감사도 평가의무를 미이행
- ✓ G사 대표이사는 주총,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,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

3 [외부감사인] 의견 표명 의무

◆ 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,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.

위반 사례

- ✓ H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으므로,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

◆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서 정의한 방식으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.

-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,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(감사)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위반 사례

- ✓ K사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표명함

III. 향후 계획

- 금감원은 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·법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최근 개정내용*의 충실한 숙지 및 이행 등을 통해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.

*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 마련 ('23.12.29. 금감원 보도자료)

- 한편, '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·정착 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.

※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모범기준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-업무자료-회계-자료실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·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
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: <https://law.fss.or.kr/fss/main/contents.do?menuNo=200468>
○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: <https://www.k-icfr.org/sub/menu/data.asp>